

Macbeth 에 나타난 Biblical Echoes

權 英 根*

I.

*Macbeth*에는 폭군인 주인공과 더불어 마녀, 환영, 유령과 같은 초자연적인 존재들 까지 등장한다. 그리고 전쟁터의 북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나팔소리, 종소리, 여인들의 울부 짖는 소리등이 끊임없이 들려오면서 음산한 분위기를 돋군다. 이러한 점들은 사건과 행동의 격렬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공포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most profound and mature vision of evil”¹⁾ 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thick darkness upon a human soul”²⁾ 을 느끼게 해준다.

그런데 *Macbeth*에는 악과 암흑 이외에 ‘grace’와 밝음이 공존하여 대조 내지는 대결을 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예컨대 빛과 어두움, 선과 악, 하나님과 사단, 질서와 무질서, 자연과 초자연, 천국과 지옥의 갈등이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이같은 *Macbeth*에 대한 지금까지의 비평은 주로 ‘Devilish Macbeth’(IV. iii.117)를 중심으로 한 것이어서 자못 Malcolm, Macduff등의 인물이 소홀하게 취급되었었다. Roy W. Battenhouse도

* 人文大學 專任講師

1. G. Wilson Knight, *The Wheel of Fire* (London: Methuen, 1949), p.140.

2. Edward Dowden, *Shakespeare: A Critical Study of His Mind and Art* (London: Routedge & Kegan Paul, 1875), p.244.

"Bradley slurred over the roles of Malcolm and of pious Edward, whom the play shows to be acting in the name of nature sanctified by the light of grave"³⁾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Macbeth* 를 좀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점차 해석은 다양해 졌다. D. A Traversi, M. M. Mahood, D. Cunningham 등은 이 비극을 질서파괴로 인한 최후의 심판날 준비의 측면에서 보고 있고 John Wain은 "*Macbeth* is the most Christian of Shakespeare's works"⁴⁾ 라고 평하고 있는데 이미 많은 비평가들이 *Macbeth* 에 담긴 Biblical allusion과 image를 찾아 종교적 작품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종교적 작품에는 Bible이 단순히 어귀나 표현에서의 울림뿐만 아니라 structure에도 반영되어 있다. 말하자면 보다 근원적인 인류역사의 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요컨대 Mgr Kolbe는 *Macbeth* 를 "picture of special battle in a universal war" 즉, Sin과 Grace 간의 싸움으로 보고 있고 K. Muir도 "Many antitheses which are not to be found under such headings as Angel and Devil, good and evil"⁵⁾ 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universal war'와 'Angel and Devil'을 연결해 볼때 *Macbeth* 에는 피상적인 대조 뿐만 아니라 보다 원형적인 대조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본 고에서는 보다 원형적인 대조에 관심을 가지고 *Macbeth* 에 나타난 Biblical Echoes를 통해 작품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II.

Macbeth 에는 blood image가 많이 나온다. 'blood' 자체만의 언급도 백여회 이상이나 된다.⁶⁾ 따라서 "*Macbeth* begins and ends with slaughter. There is more and more blood, everyone walks in it, it floods the stage,"⁷⁾ 한다는 Kott의 말이 실감이 난다. 이 blood image는 그만큼 작품 이해에 중요한데 *Macbeth* 장군의 전투장면을 보고하는 부분에서부터 시작된다. 그중에서도 극의 초반부터 Macdonwald의 찢린 머리가 성벽 위에 걸려있었다던가 "to bathe in reeking wounds/or memorize another Golgotha"(I. 1.40)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blood가 단순한 blood image만을 주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Golgotha, place of a skull'(마 27 : 33)에서 "They

3. Roy W. Battenhouse, *Shakespearean Tragedy, Its Art and its Christian Premises* (Bloomington : Indiana University Press, 1969), p. 71.

4. John Wain, *The Living World of Shakespeare* (London : Macmillan, 1965), p. 186.

5. Kenneth Muir, ed., *Macbeth* (London : Methuen & Co Ltd, 1962), P. xxviii.

6. *Ibid.*, p. 5 Note 참조.

7. Jan Kott, *Shakespeare : our contemporary*, Trans. by Boloslaw Taboski (New York : W. W. Norton & Company, 1974), p. 69.

crucified Him(마 27 : 35)했던 사실을 고려해 볼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마 27 : 25)고 했던 그 ‘blood’를 연상케 한다.

Satan의 분신인 뱀의 유혹하는 말에 사로 잡힌 Eve처럼 Witches의 말에 현혹된 Macbeth는 Duncan왕 살해를 생각하고 그 생각은 Lady Mcbeth에 의해 결심으로 굳어지는데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피로물들은 ‘dagger’를 본다.

I see thee still;
 And on the blade, and dudgeon, gouts of blood,
 Which was not so before.—There's no such thing.
 It is the bloody business which informs
 Thus to mine eyes.

(II. i. 45-49)

이 피물은 칼의 image는 이 작품 후반에 나오는 망령들과는 달리 관객에게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보통 Macbeth의 환각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것을 조종하고 있는것은 마녀들, 즉 악마이므로 이것을 보는 Macbeth에 있어서는 망령과 같은 것이며 하나의 객관적 실재이다. Macbeth를 둘러싼 악마의 연출이라 할 수 있다.

Duncan 왕을 죽이고 난 Macbeth가 피물은 손을 응시하면서 절규하고 있을때 Lady Macbeth는 냉철하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Go, get some water
 And wash this filthy witness from your hand—

(II. ii. 45-46)

살인의 증거인 blood를 단순히 물로 씻어내는 것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고 Lady Macbeth는 믿는다. 그러나 그 피는 보통피와는 다르다.

What hands are here? Ha! they pluck out mine eyes.
 Will all great Neptune's ocean was this blood
 Clean from my hand? No, this my hand will rather
 The multitudinous seas incarnadine,
 Making the green one red.

(II. ii 58-62)

“A little water clears us of this deed : How easy is it then !”(II. ii. 66)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있는 Lady Macbeth와는 달리 Macbeth의 blood에 대한 생각은 확대되어만 간다. 손에 묻은 피가 저 넓은 대양을 피빛으로 물들게 하는 생생한 image를 볼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하여

Peter Milward는 Shakespeare가 내적으로 'wash-hands-blood'라는 Biblical한 연상을 가지고 썼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성경적 증거로 시편 51 : 7과 이사야 1 : 16-18 절을 들고 있다.⁸⁾ 또한 피로 물든 바다의 비유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다.

Then the second angel poured out his bowl on the Sea, and it became blood as of a dead man... (계 16 : 3)

이 blood는 간단히 "wash your hands"(V. i. 58)한다고 씻어지는 피가 아니라 내부 깊숙이 파고 들어 간다. 요컨대 스스로 범한 죄악의 증거인 blood를 water로 씻어내려는 단순한 생각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는 내면에 담긴 의미는 대조를 이루면서 극의 효과를 높인다.

Duncan왕의 피를 흘리게한 죄는 당사자인 Macbeth 뿐만 아니라 Scotland 전역에 만연되고 있다. "blood will have blood"(III. iv. 121)하기 때문에 "bloody and invisible hand"(III. ii. 48)가 작용하는 어두운 밤에 Banguo도 피를 흘리고 죽는다. 점점 피로 물들어 가는 Macbeth는 "I'm in blood"(III. iv. 135)라고 고백하고 있다. Macbeth 뿐만 아니라 'Bleed, bleed, poor country!(IV. iii. 31)라고 외치는 Macduff의 절규속에서 Scotland도 피빛으로 물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국가의 머리인 Duncan왕이 시해 당함으로써 이제 그 국가 전체가 피를 흘리며 고통에 싸여있다.

보통 피와는 다른 이 'blood'는 Lady Macbeth의 내면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다. 'sleep-walking' 장면에서 그녀는 무의식 속에서 'out, damned spot! out'(V. i. 33)라고 외친다. 내면에 자리잡고 있던 죄악의 표상인 'spot'는 사라질 수가 없고 오직 "Here's the smell of the blood still : all the perfumes of Arabia will not sweeten this little hand." (V. i. 47-48)라는 생각과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죄악의 대가는 이처럼 비참하고 처절하여 오직 'Hell is murky'(V. i. 34)로 이어진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의 상징인 blood에 Arabia의 향수도 효과가 없다. 다만 죽음과 시커먼 지옥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상에서 *Macbeth*에 나오는 blood의 특이성을 고찰했다. 그 피는 "Abel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히 12 : 24), '언약의 피'와 연결되어 기독교적인 의미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죄를 범한 인간들의 비극적 상황을 절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8. Peter Milward, *Shakespeare's Religious Background* (Tokyo : The Hokuseido Press, 1973), pp. 98-99.

III.

Macbeth는 Duncan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Besides, this Duncan

Hath borne his faculties so meek, hath been
So clear in his great office, that his virtues
Will plead like angels, trumpet-tongu'd, against
The deep damnation of his taking-off;

(I. vii, 16-20)

우선 그는 온유하신 왕이다. 그는 왕권을 남용하거나 힘으로 억압하는 정치가가 아니라 그 행적에 따라 응분한 상과 벌을 베풀고(I. ii. 65-67) Macbeth같은 용감한 장군에게는 두개 이상의 영주자리를 봉하기도 한다. 또한 그 직무를 분명하고 정의롭게 처리하는 인물이다. 그는 그의 살해소식이 전해지면 만인이 통곡하며 울게 될 정도로 덕망이 높은 왕이다. 그러나 Duncan왕은 야심에 찬 Macbeth에 의해 살해된다. Milward는 살인을 저지를 Macbeth와 그리스도를 판 Judas를 다음과 같이 연결하고 있다.

Macheth, too, implicitly compares himself to Judas, when he addresses to himself the words of Christ addressed to Judas on the night of the betrayal (John Xiii : 27; 'That thou doest, do quickly) :

If it were done, when 'tis done, then 'twere well
It were done quickly : (I. vii. 1-2)⁹⁾

Bible에는 그리스도가 죽기 전날밤 성만찬을 베푸신다. (마 26:26-29) 그 일이 있은 후 제자 중 가장 재리에 밝은(요 13:29) 가롯유다의 반역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고난을 거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 그런데 *Macbeth*에서도 Duncan왕이 죽기 전날밤 Macbeth의 집에서 연회를 마친 후 그의 인척이고 공복이며 그날 연회를 베푼 장본인의 손에 의해 죽는다. Macbeth가 덕망있고 온유한 Duncan왕을 살해한 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요컨대 죄없이 죽은 그리스도나 유덕하고 온유한 품성의 Duncan왕의 죽음 사이엔 상관 관계가 있다. 이 점에 대해 Battenhouse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9. *Ibid.*, p. 99.

An occasional 'innocent' death in a tragedy, by someone other than the titular hero, can truly suggest Christ's—as, for instance, Codelia's death by hanging, or Duncan's being killed between two grooms.¹⁰⁾

다음은 Duncan 왕의 시체를 발견한 후 Macduff의 반응인 “Most sacrilegious Murther has broke ope/ The Lord's anointed Temple,”(II. iii. 66-7)에 대해 살펴보자. ‘Lord's anointed Temple’은 Duncan 왕의 육체를 말하는 것으로써 이 표현을 Bible에서 찾아보면 여러곳에서 발견된다. 예컨대, ‘temple of His body’(요 2:21), ‘the temple of Lord’(예 7:4) ‘the temple of God’(고후 6:16)와 ‘the Lord's anointed’(삼상 24:10), ‘God anointed Jesus’(행 10:38)을 미루어 볼 때 ‘the Lord's anointed Temple’은 ‘기름부어진 그리스도의 육체’를 말함을 알 수 있다. 이 점에 대해 Delius는 “this allusion constitutes ‘a mixture of the methaphor and subject’, because it is not the temple itself which can really be described as anointed but Duncan who is anointed of the Lord”¹¹⁾ 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상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Duncan 왕은 그리스도의 형상이란 점이다.

이 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Duncan왕 시해 전후로 발생한 자연의 이변 현상을 살펴 보자.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죽을 때에도 자연의 커다란 이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Duncan왕의 방문 소식을 들은 Lady Macbeth는 온통 왕을 시해할 생각으로 흥분하면서 기다린다. 이때 Macbeth가 등장하여 왕이 오늘밤 자기 집에 머물것임을 알리자, “O! never shall sun that morrow see!”(I. v. 60)라고 기원한다. 그런데 실제로 다음날에는 일식현상이 발생한다. 물론 이때 ‘sun’은 Duncan 왕이며 실제의 태양이다. Rosse와 Old Man 사이의 대화를 살펴보자.

Rosse	Ha, good Father, Thou seest the heavens, as troubled with man's act, Threatens his bloody stage: by th'clock 'tis day, And yet dark night strangles the travelling lamp. Is't night's predominance, or the day's shame, That darkness does the face of earth entomb, When living light should kiss it?
-------	--

10. Brttenhouse, *op. cit.*, p. 94.

11. H. Mutchman & K. Wentersdorf, *Shakespeare and Catholicism* (New York: Sheed and ward, 1952), pp. 226-7.

The King's 'honours' are compared to 'stars', the king's gentle rule of love thus blending with the universal lights. But the evil that grips Macbeth must hide from such things of brilliance and universal beauty.¹²⁾

Duncan王의 후계자로 확정된 Malcolm은 Duncan王과 동등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연하면, 王權의 측면에서 보면 Duncan=Malcolm의 공식이 성립된다. 따라서 Duncan王은 Macbeth의 손에 죽지만 실제로는 Malcolm으로 다시 살아난 것이다. 王權을 물려받은 Malcolm은 Scotland에 더 이상 'mercy'(II. III, 144)가 없음을 한탄하고 "I'll to Englanel."(II. III. 135)할 결심을 밝힌 후 Scotland를 떠나 England로 간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회생된 Duncan王은 살아서 Scotland를 떠나듯 그리스도도 회생되었다가 살아 나셨고(마 28:6) 그후 地上을 떠났다는 점이다. 요컨대 Duncan王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면 영국으로 간 Malcolm은 부활한 그리스도의 그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증거를 작품에서 찾아 보기로 하자.

Malcolm이 간 영국은 'holy king'(III. iv. 30)이며 'good king'(III. iv. 147)인 'pious Edward'(III. vi. 27)가 통치하는 왕국이다. 반면에 피로 물들인 Scotland는 'suffering country'(III. iv. 48)이다. Duncan王 치하의 Scotland에는 질병이 없는 생기있고 건강한 나라였다. 그러나, Duncan王이 살해된 후 질병과 독으로 가득찬 국가로 변했다. 이 점은 젖과 꿀이 흐르던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죽인 후 그 피 값으로 국토 전체가 황폐케 된 사실을 연상시켜 준다.(마 24:38)

그러면 Scotland와 아주 대조를 보이고 있는 England를 살펴 보자.

Doct. Aye, Sir'; there are a crew of wretched souls
That stay his cure their malady convinces
The great assay of art; but at the touch,
Such sanctity hath Heaven given his hand,
They presertly amend.

.....

Macd. What's the disease he means?

Mal. 'Tis call'd the Evil :
A most miraculous work in this good King,
Which offer, since my here-remain in England,
I have seen him do. How he solicits Heaven,
Himself best know; but strangely-visited people,
All swoln and ulcerous, pitiful to the eye,

12. G. Wilson Knight, *The Imperial Theme* (London : Methuen & Co. Ltd, 1931), pp.126-127.

The mere despair of surgery, he cures;
 Hanging a golden stamp about their necks,
 Put on with holy prayers: and 'tis spoken,
 To the succeeding royalty he leaves
 The healing benediction. With this strange virtue,
 He hath a heavenly gift of prophecy;
 And sundry blessings hang about his throne,
 That speak him full of grace.

(IV. iii. 141-159)

위의 대사를 잘 살펴 보면 'Heaven' 등이 3번 나온다. 그외에 'holy', 'royalty' 'healing benediction', 'prophecy', 'blessings', 'full of grace' 등 Bible에서 Heaven의 부류에 속하는 어휘들이 다수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다분히 영국을 Heaven으로 창조한 Shakespeare의 의도를 나타내 준다. Scotland에 비해 영국은 하늘에서 성스러운 힘을 받은 손의 영향력 안에 있는 나라이다. 말하자면 Shakespeare의 의중에는 영국을 Heaven化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스도가 지상을 떠나 부활하여 간 곳은 Heaven이었고 Malcolm이 Scotland를 떠나서 간 곳은 영국이었다. 그러므로 영국=Heaven의 관계가 성립한다면 Malcolm=그리스도의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특히 여기 나타난 supernatural power는 'weired sisters'의 evil supernatural과 대조를 이루면서 하늘나라와 지옥의 대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영국=heaven의 관계를 강화해 주고 있다.

Macduff는 자신의 처와 자식이 무참히 살해 당했다는 소식을 Rosse로 부터 듣고 나서 비통해한다. 이에 대한 Malcolm의 제안은 Malcolm 이해에 도움이 된다.

Let's make us medicine of our great revenge,
 To cure this deadly grief.

(IV. iii. 214-15)

병든 Scotland를 치유하고 악행을 응징하는 일만 남았다. 병든 Scotland를 치료할 약과 의사는 Malcolm 자신이다. 신하들도 이 점을 인식하고 충성을 다짐한다.

Cath. Meet we the med'cine of the sickly weal;
 And with him pour we, in our country's purge,
 Each drop of us.
 Len. Or so much as it needs
 To dew the sovereign flower, and drown the weeds

(V. ii. 27-30)

Malcolm은 'medicine'과 건강하고 무성하게 자라는 'sovereign flower'로서 병든 Scotland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피로 물들은 Scotland는 말세적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Bible에는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의 농간'(벧후 3:3-5)이 있겠고, 먼저 불법이 성하겠고(마 24:2), 배도하는 일이 있을 것'(눅, 8:8) 말하고 있다. 그런데 Scotland에는 마녀들과 유령들의 기롱으로 Macbeth가 커다란 불법을 저질렀다. 따라서 모든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 배신하는 일이 많아졌다. 공포와 폭악과 음모와 살인이 어둠과 함께 폭넓게 깔려있다. Bible에는 이같은 말세적 상황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종식되게 되어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지상의 질서가 회복되듯이 그리스도로 오는 Malcolm도 Scotland에 깊숙이 스며든 병독을 씻어 낼 수 있다. 이같이 막중한 사명을 띤 Malcolm군의 진격의 때는 왔다.

Come, go we to the King; Our power is ready,
Our lack is nothing but our leave. Macbeth
Is ripe for shaking, and the Powers above
Put on their instruments. Receive what cheer you may ;
The night is long that never finds the day.

(IV. III, 236-240)

Macbeth는 마녀들과 같은 통속인 유령들의 예언인 Birnam 숲이 Dunsinane로 움직여 오기 전에는 절대 안전할 것임을 믿고 있다. (IV. I. 92-94) 그런데 'gracious England'는 기독교 국가에서는 가장 강한 Siward 군대를 지원해 준다. (IV. III, 189-192) 진격하는 모든 군인들에게 "Let every soldier hew him down a bough/ And bear't before him"(V. IV. 4-5)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군대는 커다란 'moving grove'(V. V. 38) 즉 'wood of Birnam'이 되어 진격하게 된 것이다. 이 'bough'에 대해 Battenhouse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His eventual defeat by Malcolm, who returns with tree branches, suggests by its imagery the biblical theme of a "righteous branch" as deliverer, a theme which in Old Testament prophecy figured the promised end of exile¹³⁾

예컨대 'righteous shall flourish as a branch'(잠 11:28)나 'cause branch of righteous grow'(렘, 33:15)에서 알 수 있듯이 '의로운 가지'는 부활했다 재림할 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여기서는 심판의 포으로 다시 오는 Malcolm을 말하는 것이다.

13. Battenhouse, *op. cit.*, p.72.

따라서 V막 VI장에서 Malcolm 군대의 Dunsinane城 공격은 의미상 그리스도의 재림하고 연결된다. 다음 상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Make all our trumpets speak; give them all breath,
Those clamorous harbingers of blood and death.

(V. vi. 9-10)

여기서 trumpet은 재림하는 그리스도를 알리는 그것과 비슷하다.

For the Lord Himself will descend from heaven with a shout, with the voice of an archangel, and with the trumpet of God.

(데전 4:16)

'trumpet' 소리와 함께 요란하게 재림할 그리스도와 scotland로 다시 질서회복을 위해 진군하는 Malcolm군의 'trumpet' 소리에서 H·R coursen이 지적한대로 Malcolm은 'role as Messiah'""를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none of woman born/shall harm Macbeth." (N. 1. 80)라는 유령의 주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주문은 'wood of Birnam'에 관한 것과 더불어 Macbeth의 최후의 보루이다. 이 지구상에 여자의 몸에서 나오지 않은 인간은 없으니 Macbeth를 죽일 자는 한 사람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런데 창세기에는 Adam을 유혹하여 타락케한 Satan에게 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다.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seed and her Seed: He shall bruise your head, and you shall bruise His heel.

(창 3:15)

여기서 'her Seed'는 성령으로 잉태될 그리스도를 말한다. 모든 인간은 여자의 몸에서 낳지만 남자의 후손이다. 그러나 역사상 한사람 그리스도만은 남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마 1:18-21) 실제로 'born of a woman'(갈 4:4) 했지만 '여자의 후손'이다. 그러므로 유령의 이 주문은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온 Malcolm 군대에 의해서 머리가 상하게 되는 것이다.

이극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Malcolm과 재림하는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자.

14. Herbert R. Coursen, JR., 'In deepest Consequence: Macheth' in *Shakespeare Quarterly* Vol. XV, Autumn 1967. NO. 4, p. 387.

We shall not spend a large expense of time,
Before we reckon with your several loves,
And make us even with you. My Thanes and kinsmen,
Henceforth be Earls: the first that ever Scotlond
In such an honour nam'd. What's more to do,
Which would be planted newly with the time,—
As calling home our exil'd friends abroad,
That fled the snares of watchful tyranny;
Producing forth the cruel ministers
Of this dead butcher, and his fiend-like Queen,
Who, as 'tis thought, by self and violent hands
Took off her life;—this, and what needful else
That calls upon us, by the grace of Grace,
We will perform in measure, time, and place.
So thanks to all at once, and to each one,
Whom we invite to see us crown'd at Scone.

(V. ix. 26-41)

자세히 살펴보면 Malcolm의 발표내용과 그리스도의 재림목적과 맞아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 첫째는 Malcolm이 '각각의 충성을 헤아려 응분의 보답을 할 것임'을 밝히고 있는데 Bible에는 "For the son of man will come in glory of His Father with His angels, and then He will reward each according to his work." (마 16 : 27)로 되어 있다. 둘째, "외국에 몸을 숨긴 동포들을 불러들일 것"임을 피력하고 있는데 Bible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If any of you are driven out to the farthest parts under heaven, from there the Lord your God will gather you, and from there He will bring you. (신 30 : 4)

셋째, 모든 불법자들을 재판정에 끌어낸다고 하는데 이점에 대해선 마25 : 32-46까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 해석의 중요한 key word인 'grace of Grace'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Milward의 다음 주장을 보자.

This reunion is, moreover, represented as the outcome not of mere natural power, but of divine grace working both in and above nature. This is a theme already developed in

Macbeth, where the supernatural evil centered on Macbeth is dissipated by 'the grace of Grace'¹⁵⁾

위의 글에서도 알 수 있듯이 'grace of Grace'는 'divine grace'로 God를 뜻하여 'the grace of God'(고전 3:10)를 의미한다. *Macbeth*에서는 Malcolm이 모든일을 자비로운 신의 가호를 얻어 실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Bible 내용의 성취자가 된 것이다.

But the free gift is not like the offense. For if by the one man's offense many died, much more the grace of God and the gift by the grace of the one man, Jesus Christ, abounded to many.

(롬 5:15)

한 사람 Adam이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 왔듯이 한 사람 Macbeth의 살인으로 Scotland는 저주를 받아 황폐케 되었다. 그런데 이제 한 사람 그리스도의 표상인 Malcolm의 진격으로 하나님의 선물인 'grace'가 많은 사람에게 넘치게 된 것이다. 결국 Scotland 거민들은 재림한 그리스도인 Malcolm을 중심으로 "stand and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롬 5:2)하게 될 것이다.

V.

*Macbeth*의 시작에서부터 등장하여 끝날때까지 직접 간접으로 모든 인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존재들이 마녀들이다. 그들은 특히 주인공 *Macbeth*와의 상관관계를 생각할 때 작품 구성에 꼭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들의 본성은 *Macbeth*에서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가? 그들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작품 이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같은 점들을 살펴보는 것은 *Macbeth* 이해에 커다란 도움을 줄 것이다.

마녀에 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여러가지 견해가 있다. Bradley는 그들을 어떤 초자연적인 힘을 악령으로부터 받은 존재들로 보고 있다.¹⁶⁾ H·B Charlton은 'the embodied malevolence'¹⁷⁾로 규정하고 있고 Coleridge는 마녀들을 'Fates'와 'Furies'의 구체화로 보고 있다.¹⁸⁾ 대체

15. Milward, *op. cit.*, p. 233.

16. A. C. Bradley,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Macmillan & Co LTD., 1958), p. 285.

17. H. B. Charlton, *Shakespearean Tragedy* (Cambridge: the Univ. Press, 1952), p. 145.

18. M. M. Badawi, *Coleridge: Critic of Shakespeare*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1981), p. 134.

적으로 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성격을 쉽사리 밝힐 수 없기 때문에 더욱 극적 효과를 주는지도 모른다.

The weired sisters in *Macbeth* are the incarnation of evil in the universe, all the more effective dramatically that their nature is never defined¹⁹⁾

이상과 같이 마녀에 대한 제 주장에서 그 주장의 차이를 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Macbeth*에서 마녀들은 중요한 Character임을 알 수 있고 또 그 본성의 규명이 *Macbeth* 이해에 여러가지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Macbeth*는 처음부터 뇌성, 번개, 폭우속에서 시작된다. 여기에 "so wither'd and so wild in their attire" (I. III. 40) 한 witches의 등장은 당시 관객에게 좋은 호기심과 공포감을 주었을 것이다. 그들의 대화는 처음부터 "when we three meet again?" 라고 의문문으로 시작하고 있음은 그들의 실체에 의문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좋은 수단이 되고 있다. 또한 그들의 대화中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 :/ Hover through the fog and filthy air." (I. I. 11) 라는 내용도 자못 의문을 던져 준다.

이와같이 처음부터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마녀들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그들에 대한 표현부터 살펴보자. Banquo는 그들을 'instruments of darkness' (I. III. 124)라고 부르고 Macbeth는 'imperfect speakers' (I. III. 70), 'the equivocation of the fiend' (V. v. 42), 'juggling fiends' (V. VIII. 19) 'unknown power' (W. I. 69)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런데 이상 열거한 명칭들만 보아도 이 witches를 규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특히 'juggling' 'black' 'secret' 'unknown' 등의 수식어만 보아도 그들이 죄와 어둠과 악과 무질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앞에서 Duncan과 Malcolm에서 Christ figure를 찾아 볼 수 있었다. Christ figure로서의 Duncan을 죽인 Macbeth는 시해를 할 수 있도록 Witches들의 주문에서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받았다. 예컨대 마녀들은 황량한 벌판에서 "All hail, Macbeth! that shalt be King hereafter." (I. III. 50)라는 말로 Macbeth의 마음을 사로 잡는다. 앞에서 Macbeth의 Duncan왕 살해에서 그리스도를 판 Judas와 Macbeth의 동일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Judas는 그리스도를 팔기 전에 이미 "the devil having already put it into the heart of Judas Iscariot, Simon's son, to betray him." (요 13:2) 다시 말해서 이미 가롯 유다는 마귀의 수중에 들어 갔었던 것이다 (요 13:27). "one of you is a devil, He spoke of Judas Iscariot." (요 6:70)에서도 알 수 있듯이 Judas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팔도록 한 것은 바로 마귀였던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Duncan을 그리스도의 형상임을 밝혔기 때문에 Macbeth의 마음을 살인으로 이끈 것은 유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19. J. D. Wilson ed., *Macbeth* (Cambridge Univ. Press, 1968), p.21.

지로 마귀의 하수인들인 'weired sisters'들이다. 요컨데 'witches'와 'apparitions'은 그들을 뒤에서 조정하는 "masters"(Ⅳ. 1. 63) 즉 Satan의 하수인들로 볼 수 있다.

그런데 *Macbeth*의 곁에 항상 같이 다니면서 Macbeth를 돕고 있는 시종장교의 이름이 Seyton인데 그 발음이 Satan과 같은점을 고려해 보면 Macbeth와 Satan의 관계 이해에 도움을 준다. Macbeth는 매사 긴급한 경우 Seyton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Lady Macbeth의 죽음을 보고 하는 것도(V. v. 16) Seyton이다. 이 점에 대해 Coursen. JR은 "such crushing news is appropriately delivered by Seyton-Satan, representative of absolute loss"²⁰⁾ 라고 Seyton을 Satan으로 보고 있다. 또한 "the destruction of Macbeth reflects the fall of Satan himself"²¹⁾ 에서도 알 수 있듯이 Macbeth는 원형에 있어 Satan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은 논리를 보강하기 위해 작품내에서 그 증거들을 찾아보자.

But 'tis strange :
And oftentimes, to win us to our harm,
The instruments of Darkness tell us truths;
Win us with honest trifles, to betray's
In deepert consequence. —

(I. Ⅲ. 122-126)

여기서 'the instruments of Darkness'는 'unknown power'(Ⅳ. 1. 69)를 말하는 것으로 Bible의 'rulers of the darkness'(렘 6:12)나 'power of darkness'(골 1:13)와 연결된다. 물론 '*Macbeth* is a play of darkness'²²⁾ 라고 할 때의 'darkness'가 의미하는 악이나 초자연적인 것과도 관련이 있다. 요컨데 'secret, black, and midnight hags!'(Ⅳ. 1. 48)들은 거짓으로 진실을 말하면서 유혹하고 증대한 일에 관해서는 진리가 없으므로 배반하여 함정에 빠뜨리는 자들이다. 또한 'that wicked's coming is after the working of Satan with all power and signs and lying words and with all unrighteous deception'(데후 2:9)한다고 규정된 것처럼 적은 일에 있어서는 약간의 능력도 있고 표적도 보여주나 종국에 가서는 속이는 거짓 기적으로 궁극적으로 모두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다.(마 25:41) Wilson도 "For the theme of both (*Macbeth* and *Paradise Lost*) is Temptation and Fall, the assault by Hell upon the two great human souls"²³⁾ 라고 지적하고 있다.

20. Coursen, JR., *op. cit.*, p.386.

21. Irving Ribner, *Patterns in Shakespearean Tragedy* (London: Methuen & Co LTD, 1960, p.155.

22. L. C. Knights, 'Shakespeare's Imagery' in *The Living Shakespeares*, ed., Robert Gittings (London: Heineman, 1960), p.65.

23. J. D. Wilson *op. cit.*, p.22.

작품중에도 Macbeth는 'Devilish Macbeth'(Ⅳ. Ⅲ. 117) 'hell-kite'(Ⅳ. Ⅰ. 117) 'hellhound'(Ⅴ. Ⅷ. 3) 'hotter name than any is in hell'(Ⅴ. Ⅶ. 6) 등 지옥의 화신처럼 명명되고 의미되어 지고 있다.

이 'imperfect speakers'(Ⅰ. Ⅲ. 70)들은 그 말에 있어서 확실성보다는 막연함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 막연함의 대표적인 말이 "Fair is foul, and foul is fair"(Ⅰ. Ⅰ. 11)이다. 물론 이 표현은 'the equivocation of the fiend'(Ⅴ. Ⅴ. 42)의 속성으로 받아들여 본다면 작품의 주제와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들은 이같은 막연한 말로써 모든 인간을 유혹하여 파멸로 이끄는 것이다. 인간에게 'fair'한 것이 그들에게 'foul'하고 또 그 반대도 성립되는 것이다. 이것은 가치 혹은 질서의 顛倒를 표명한 것으로 마녀들의 역할과 수법을 어느정도 짐작하게 해준다. 그런데 "Night's black agents to their preys do rouse(Ⅲ. Ⅱ. 53)라고 되어 있고 Bible에는 "마귀들이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벧전 5:8)고 되어 있는데 이 마녀들에게 걸려든 Macbeth의 "So foul and fair a day I have not seen,"(Ⅰ. Ⅲ. 38)라고 하는 대사를 생각해 볼 때 과연 Macbeth는 '마귀가 삼킬만한 희생자'임을 알 수 있다. 이같이 가치가 전도된 상황에서 Macbeth가 듣는 "that shall be king hereafter!"(Ⅰ. Ⅲ. 50)라는 마녀들의 주문은 "You will be like God."(창 3:5)라는 Satan의 말과 그 내용에 있어서는 똑 같다. 타락하게 할 이 한마디에 유혹되어 Adam이 범죄했듯이 Macbeth도 위의 말 한마디에 Duncan 왕을 죽이고 만다. 이같은 Satan의 거짓말에 속은 Macbeth는 'Thane of Glamis'나 'Thane of Cawder'라는 두가지 주문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Two truths are told as happy prologue to the sweeling act of the imperial theme"(Ⅰ. Ⅲ. 127)이라고 자못 흐뭇해 하기까지 한다. 그러나 Macbeth는 그것이 '거짓 기적'임을 알리가 없다. 그러므로 "This supernatural solliciting cannot be ill; cannot be good:(Ⅰ. Ⅲ. 130-1)라고 방백이 이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Knight는 이 부분을 'evil'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This is the moment of the birth of evil in *Macbeth*—he may indeed have had ambitious thought before, may even have indeed the murder, but now for the first time he feels its oncoming reality.²⁴⁾

Macbeth의 진정한 비극은 마녀들에 의해 시작된다. 그는 이제 마귀의 'masters'(Ⅳ. Ⅰ. 63)인 Satan의 영향권 내에서 그들의 조정을 받으면서 어둠 속을 헤메게 된다. Adam이 타락한 후 하나님의 저주대로 '땅에서는 오직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뿐이듯이'(창 3:18) Macbeth의 마음은 공포와 환상, 또 제략과 살인으로 뒤범벅이 된다. 마치 마녀들이 온갖 잡탕들을 넣고 끓이고 있는 가마솥처럼 Macbeth의 마음은 들끓고 있다.

24. Knight, *op. cit.*, W.F. p.153.

Double, double toil and trouble
Fire, burn; and caldron, bubble.

(IV. i. 10-11)

이 가마솥이 끓은 장면에서는 'the lake of fire burning with brimstone'(계 19:20)을 연상할 수 있다. 마녀들이 'hellbroth'(IV. i. 19)를 언급하고 있듯이 'everlasting fire'(마 25:41) 속에서 'everlasting punishment'(마 25:46)를 감수해야 할 Macbeth를 또한 상상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마녀들은 사단의 하수인들로 Macbeth를 영원한 불못으로 인도하길 원하는 'supernatural'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바람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바람을 풀어 놓아 최대의 적지인 교회를 넘어 뜨리는 등 온갖 파괴적 행동을 다 한다(IV. i 52-60) 그들에게 자기의 운명을 맡긴 Macbeth는 온갖 갈등속에서 최후의 심판만을 기다리고 있을 무렵 마녀들에 대한 그 실체를 깨닫게 된다.

Accursed be that tongue that tells me so,
For it hath cow'd my better part of man:
And be these juggling fiends no more believed
That palter with us in a double sense:

(V. viii. 17-20)

물론 그는 이같은 인식이 있기 전에도 'the equivocation of the fiend./that lies the truth'(V. v. 43)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wood of Birnam'과 'woman born'의 실체를 파악한 지금에 와서야 너무나 늦게 그들의 정체를 파악하게 된 것이다. 그 이유는 마귀들의 철저한 계획속에서 Macbeth가 놀아 났기 때문이다. 이점에 대해 Bible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Devil was a murder from the beginning, and does not stand in truth, because there is no truth in him, when he speaks a lie, he speaks from his own resources, for he is a liar and the father of it. (요 8:44)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것과 같이 마녀들은 Shakespeare가 *Macbeth*를 쓸 때 철저히 처음부터 계산에 넣고 창조한 인물들이다. 빛과 Heaven의 세계인 Duncan과 Malcolm의 세계와 흑암과 Hell의 세계인 Macbeth와 Lady Macbeth의 세계를 대비시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에 대적할 Satan의 영역을 창조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VI.

지금까지 우리는 Macbeth에 나타난 두 세계인 'Grace'와 'Darkness'의 대립된 세계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다음은 'Darkness' 세계속에서 겪는 Macbeth의 절망의 세계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했던 Adam과 마찬가지로 왕이 되고픈 야망을 지닌 Macbeth가 그것을 자연법칙인 신의 섭리에 맡기지 않고 첩경인 살인죄를 저지른 것은 "the fall from a state of grace"²⁵⁾ 이다. 그는 대역 죄를 저지른 후 "This is a sorry night"(II. ii. 20)라며 기력을 잃는다. 그는 몽롱한 상태에서 두 침실보초가 죽던 모습을 Lady Macbeth에게 설명한다.

One cried, 'God bless us!' and 'Amen' the other,
As they had seen me with these hangman's hand
List'ning their fear, I could not say, 'Amen,'
When they did say, 'God bless us.'

(II. ii. 26-29)

그의 상상력은 하늘로 부터 즉각적인 심판을 들은듯, 그는 두려움에 넋을 잃는다. 그가 'Amen'이라 기도할 수 없음은, 그가 이제 완전히 신과는 교통할 수 없음을 나타낸다. Lady Macbeth는 "consider it not so deeply,"(II. ii. 29)라고 타이르나 "I'm afraid to think what I have done"(II. ii. 50)라며 마치 'Adam이 범죄후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로 숨었듯이'(창 3:8) 두려움과 죄의식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몸을 뒹다. 피물은 손을 보며 떨고 있는 순간 그들의 평화를 깨트리고 앞날에 절망의 고통을 알리기라도 하듯 문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한다.

[Knocking within.]

Porter, Here's knocking, indeed! If a man were Porter of Hell gate, he should have old turning the key. [Knocking.] Knock, knock, knock. Who's there, i'th' name of Belzebub?—Here's an farmer, that hang'd himself on th' expectation of plenty: come in, time-pleaser; have napkins enow about you; you'll sweat for't. [Knocking.] knock, Who's there, in'th' other devil's name?—Faith, here's an equivocator, that could swear in both the scales against either scale; who committed treason enough for God's sake, yet could not equivocate to heaven: O! come in, equivocator. [Knocking.]

25. Coursen, JR., *op. cit.*, p.377.

Knock, knock, knock. Who's there?—Faith, here's an English tailor come hither for stealing out of a French hose: come in, taiior; here you may roast your goose.

(II. III. 1-15)

자기 자신을 Miracle cycles의 전통적 인물인 'hell-gate porter'와 同一視하고 있는 porter는 문밖의 인물들을 역설로 조롱하면서 그들을 모두 지옥으로 초대하는듯 하다. 이 Porter를 전통적인 인물인 'hell-gate porter'와 연결시키는 목적은 Macbeth's castle이 있는 Inverness를 Hell로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²⁶⁾ Muir는 말하고 있다. 지옥문에 온 farmer, equivocator, tailor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역량을 넘어서서 스스로 속이고 권력의 탐욕에 눈이 멀었던 Macbeth 역시 지옥의 길을 걸어가야함은 당연하다. 'hell-gate porter'는 탐욕에 의해 멸망할 자들의 과멸을 예언하고 있으며 별도 그 빛을 숨기고 더러운 공기로 가득한 Hell을 통하여 Macbeth와 Lady Macbeth에게 다가올 'the primorse way to th'everlasting bonfire'(II. III. 20)로 가는 과멸의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길의 종착점이 Hell이기 때문에 그 hell-gate에서 있는 Porter의 물음인 'Who's there i'th name of Belzebub?'로 미루어 볼때 Duncan王을 살해한 Macbeth는 이미 Hell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Belzebub는 'the prince of devils'(마 12:24)이기 때문이다. Fergusson도 이 Porter scene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But it is, in fact, a farcical and terrible version of "outrunning reason", a witty and very concentrated epitome of this absurd movement of spirit. The Porter first teases the knockers at the gate with a set of paradoxes, all of which present attempts to outrun reason; and he sees them all as ways into Hell.²⁷⁾

Shakespeare는 이 Porter scene으로 관객들로 하여금 이성을 잃고 환상에 쫓아 살인의 '악'을 행한 Macbeth에게 다가올 지옥의 세계를 예측하게 하고 있다.

악과 야합해서 야망을 성취한 Macbeth는 자신이 저지른 너무나 끔찍한 행위에 극단적으로 신경을 소모한 끝에 다음과 같이 내적 혼란과 분열 상태를 토로한다.

Had I but died an hour before this chance,
I had liv'd a blesseed time; for, from this instant,
There's nothing serious in morality;
All is but toys: renown, and grace, is dead;

26. Muir, *op. cit.*, p. XXIV.

27. Francis Fergusson, 'Macbeth as the imitation of an action' in *Shakespeare, the Tragedy*, ed. Alfred Harbage, (Prentice-Hall, Inc.,) p. 109.

The wine of life is drawn, and the mere lees
Is left this vault to brag of.

(II. iii. 89-94)

맹렬하고 강하던 Lady Macbeth도 전혀 예기치 못했던 고독과 허무감에 허덕인다.

Nought's had, all's spent,
Where our desire is got without content :
'Tis safer to be that which we destroy,
Than by destruction dwell in doubtful joy.

(III. i. 4-7)

이 독백은 그들이 좇던 야망도 덧없는 허상이고, 신과 단절된 그들의 절망상태는 고독하고, 허무하고, 불안하다는 것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다.

불안한 Macbeth는 이성을 앞지른 불안한 행위만을 계속한다. 달려온 귀족들에게 결백을 가장하여 두 침실 보초에게 살인을 뒤집어 씌운다.

Th'expedition of my violent love
Outrun the pauser, reason.

(II. iii. 108-109)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 살인 했음에도 마치 Adam이 선악과를 먹은후 하나님이 먹었느냐는 질문에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창 3:12)라고 변명하듯 오히려 충성 때문에 이성을 앞질러 두 침실 보초를 죽였노라고 변명한다. 이성을 앞지르는 불안한 행위를 Fergusson은 'an impossible stunt, like lifting oneself by one's own bootstraps'²⁸⁾라고 비유하고 있다. 그는 엄습해 오는 불안과 초조의 두려움을 초극하기 위해 악이 지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세계에 갇혀 버린다. 그대신 이성을 앞지른 곡예같은 '악'만을 계속한다. 이러한 Macbeth에 관하여 Wilson은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He will not recognize or submit to his own fears, his own scruples. He tries to be entirely self-sufficient and will not face the all but overwhelming evidence of his insufficiency. He is a Faust who denies the ultimate source of his fear, of despair²⁹⁾

28. *Ibid.*, p.107.

29. Harold S. Wilson *On the Design of Shakespearean Tragedy* (Toronto: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58), p.73.

요컨대 Macbeth는 신과 이탈하여 죽음을 향해 즐달음치고 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Duncan王의 두 아들, Donalbain과 Malcolm의 England로의 망명은 Scotland의 정상적인 생활의 종막을 상징한다. 그후부터 악의 연속인 무질서의 '절망의 세계'가 시작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Macbeth의 절망의 세계의 특징 중 하나는 '악'의 연속이다. Macbeth는 악의 행위로 얻은 왕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Thou shalt get kings, though thou be none" (I. iii. 67)라던 Banquo에 대한 마녀들의 예언이 못내 불안하다. 자식이 없는 Macbeth는 Duncan王의 시해가 Banquo의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 속에서 산다. 그는 왕위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결단하면서 "Rather than so, come, fate, into the list, / And champion to th' utterance" (III. i. 70)라고 운명에 도전한다. 마귀에게 속아서 차지한 왕위는 불안하다. 그것은 'fruitless crown' (III. i. 60)이고 'barren sceptre' (III. i. 61)인 것이다. 그는 왕위를 인위적인 방법인 '악'으로 빼앗았듯이 그의 왕위를 연장키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악'이라도 자행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괴로움은 불안과 함께 그만큼 더 확대되고 심화된다. 그는 "Better be with the dead, / Whom we, to gain our peace, have sent to peace, / Than on the torture of the mind to lie / In restless ecstasy." (III. ii. 19-22)라고 극도의 양심의 가책과 불안한 상태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기까지 한다. 또한 그는 'full of scorpions' (III. ii. 36)라며 악으로 물들은 마음을 토로한다. 이는 그의 선악의 내적 투쟁이 극심함을 나타낸다. 그는 실상을 보는 통찰력이 없기에 악의 수렁에서 헤어나질 못한다. 그는 Duncan王 살해시 잠도 같이 죽었기 때문에 그가 받아서 마땅한 벌은 "a living death, without peaceful sleep or peaceful feeding"³⁰⁾ 일 수 밖에 없다.

그는 이제 암흑을 부르고 악으로 자신을 무장한다. 그는 "Come, seeling Night" (III. ii. 46)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까지는 암흑 속에 묻혀졌다면 이제는 암흑속에 들어가길 원하고 있다. 이점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이 Banquo의 살해이다. 그러나 지시 한 대로 Banquo는 살해 했으나 그의 아들 Fleance가 살아 났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 발작한다.

Then comes my fit again : I had else been perfect;
Whole as the marble, founded as the rock,
As broad and general as the casing air :
But now, I am cabin'd, cribb'd, confin'd bound in
To saucy doubts and fears.—

(III. iv. 20-24)

아무리 인위적으로 왕위를 견고하게 하더라도, 극한 고민속에서 허우적거리다 무죄한 피를 팔고

30. Knight, *op. cit.*, I T. p.134.

죄를 범하였다면 스스로 목메어 죽은 가룟 유다처럼(마 27:5) 그는 더욱 그의 악의 세계에 유배되고 감금되고, 결박당해 불안과 극도의 절망에서 헤멜 뿐이다.

그는 귀족들에게 베푼 만찬회에서 '선'과 '평화'를 가장하려 했으나 마음의 환상의 산물인 Banquo의 유령의 출현으로 여지없이 파괴되고 만다. 그는 'Blood will have blood'(Ⅲ.Ⅳ. 122)라면서 Macduff의 살해를 결심한다. 이와같이 Macbeth는 전 우주를 '악'으로 침식하고 있는 것이다.

Ⅳ막 1장에서는 악의 상징인 마녀들과 환영들을 다시 뇌성과 번개 속에서 만난다. 이 환영들은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Darkness와 Hell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Satan의 하수인들으로써 Macbeth를 Hell로 이끌려고 거짓으로 예언을 하여 Macbeth를 더욱 헤어나올 수 없는 골짜기로 몰아넣고 있다.

Macbeth의 절망의 세계의 상징의 또 하나의 특징은 '두려움'³¹⁾이다. 마녀들이 극초에 나타나 장차 王이 될 사람이라 주문할때 그의 늑골과 심장을 쥐어 짜도록(I.Ⅲ. 136) 놀라게 한 두려움은 'at the heart of this play'³²⁾에 머물면서 Macbeth와 Lady Macbeth로 부터 확대되어 Scotland 전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의 거칠고 사나운 바다에 뜨게 하는 것이다. Malcolm에게 전하는 Ross의 조국의 현실에 대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But cruel are the times, when we are traitors,
And do not know ourselves; when we hold rumour
From what we fear, yet know not what we fear,
But float upon a wild and violent sea
Each way, and move—

(Ⅳ. Ⅱ. 18-22)

Macbeth가 저질은 악이 만들어 낸 절망의 세계가 이토록 두려움으로 가득차 있는 것이다. Lily B. Campbell도 "Macbeth is, however, not only a study of fear; it is a study in fear. The sounds and images in the play combine to give the atmosphere of terror and fear"³³⁾ 라고 지적하고 있듯이 이 'fear'의 주제는 'Darkness'의 그것과 맞물리어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절망한 Macbeth의 세계의 특징들중의 또 하나는 불면이다.³⁴⁾ 낮에 비해 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 이러한 밤은 만물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이다. 그러나, Macbeth는 이러한 밤에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그 결과 불면과 악몽에 시달린다. 무죄한 Duncan

31. Mark Van Doren, 'Macbeth' in *Shakespeare, modern essays in criticism*, ed. Leonard F. Dean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353.

32. Knight, *op. cit.*, I. T. p. 125.

33. Lily B. Champbell, *Shakespeare's Tragic Heroes* (London: Methen, 1961), pp. 238-39.

34. Doren, *op. cit.*, p. 354.

왕을 죽이고 난 직후 그는 다음과 같이 절규한다.

Methought, I heard a voice cry, 'Sleep no more!
 Macbeth does murth' Sleep.' —the innocent sleep;
 Sleep, that knits up the ravell'd sleeve of care,
 The death of each day's life, sore labour's bath,
 Balm of hurt minds, great Nature's second course
 Chief nourisher in life's feast:—

(II. ii. 34-39)

왜 Macbeth는 'sleep'을 죽였는가? 이는 Duncan 왕을 암살한 Macbeth 내부의 심리적 상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W. Clemen은 Macbeth의 절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That Macbeth has murdered Duncan while asleep is what is especially fearful in his deed. The wrong has been done, as it were, not only to Duncan, but also to the sacred nature of sleep. And 'wronged sleep' rises in the conscience of the murderer like a real power.³⁵⁾

Macbeth의 'sleep no more!'라는 외침은 범죄를 저지른 Macbeth의 내부 영혼에서 나오는 외침이다. 자연이 주는 신성한 휴식인 잠을 잘 수 없는 것은 살인자의 양심에 무질서와 혼돈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Shakespeare에게 있어서 잠은 선한 사람의 특권이고 죄없는 결백한 사람에게 주는 보상이다.³⁶⁾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시: 27: 2) Macbeth가 잠을 자지 못하고 악몽에 시달리는 모습은 이미 자기를 지옥으로 이끌고 있는 마녀들이 장난친 선원을 연상시켜 준다.

Duncan 왕을 살해할 마음을 먹고 "come, thick Night, and pull thee in the dunnest smoke of Hell" (I. v. 51)라며 암흑을 부르던 Lady Macbeth도 암흑의 공포에 떨며 손에 촛불을 들고(v. 1. 20) 걸어 다니며 몽유병에 시달린다. Lady Macbeth의 이 sleep-walking 장면은 바로 sleep imagery가 이 작품에 기여하는 극적 효과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다. Doctor는 신의 섭리를 범한 Lady Macbeth에게는 육을 고치는 의사보다 영을 고치는 목사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신과 단절된 이들은 생명의 강장제인 잠을 빼앗기고 영혼이 완전히 고갈된 미칠듯한 불안한 상태에서

35. W. H. Clemen, *The Development of Shakespeare's Imagery*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p. 101.

36. Doren, *op. cit.*, p. 354.

'악'을 반복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신과 단절하고 운명과 도전하며 '악'의 수렁에서 허우적 대는 Macbeth와 Lady Macbeth의 고통중 가장 무서운 벌이 'a loss of the sweet curative of sleep'³⁷⁾이다. Macbeth와 Lady Macbeth가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는 이유는 바로 'chief nourisher in life's feast'를 살해했기 때문이다. Macbeth는 이런 자신의 처지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and sleep

In the affliction of these terrible dreams,
That shake us nightly.

(III. i. 17-19)

또한 Lady Macbeth도 연회 장면에서 연회가 만신창이로 끝난 후 Macbeth의 이같은 상태를 "lack the season of all natures, sleep." (III. iv. 140)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Knight는 이 부분에 대해 향연(feasting)과 관련되고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잠과 향연은 'creative, restorative, forces of nature'이며 'twin life-givers'이며 Macbeth는 Duncan王에게 향연을 베푼후에 살해했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단순히 한 인간에 그치지 않고 생명 그 자체를 살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³⁸⁾ 따라서 그의 절망중 '불면'은 Duncan王 살해에서 오는 원천적이고 원형적인 것이다.

또 하나의 Macbeth의 절망적 세계의 특징은 시간의 정지 상태이다.³⁹⁾ 즉 시간이 진행되지 않는 것이다. Knight도 "Macbeth's crime is an attempt to dislocate time"⁴⁰⁾이라고 주장하고 있듯이 Macbeth가 Duncan王을 죽인 암흑의 밤이 Macbeth가 죽기까지 계속 그대로 멈춰있는 것이다. 극초에 개선하고 돌아온 Macbeth에게 Duncan王이 지위를 부여한 대로 식물이 자라듯 자연의 섭리에 맡겼던들 Macbeth의 시간은 자랐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생의 실상과 허상을 구별하는 통찰력을 잃고 Duncan王을 살해한 뒤 부터 시간은 정지하고, 연속된 '악' 때문에 시간은 무질서 속에서 뒤범벅이 되고 밤의 혼미상태에 있는 것이다.

Lady Macbeth는 Macbeth로 부터 왕이 되리라는 마녀들의 주문 내용의 편지를 읽고 다음과 같이 미래를 상상하며 자기 도취에 빠진다.

Thy letters have transported me beyond,
This ignorant present, and I feel now

37. Knight, *op. cit.*, W. F. p. 127.

38. Knight, *op. cit.*, I. T., p. 134.

39. Doren, *op. cit.*, p. 355.

40. Knight, *op. cit.*, I. T. p. 150.

The future in the instant.

(I. v. 56-58)

그러나, 그녀의 황홀함도 마녀들의 사주를 받아 Duncan王을 살해한 이후에는 죽음의 세계인 evil, disease, unnatural order만이 번성하여 시간은 'Hell' 속에서 머물게 된다. 다시말해서 시간은 결코 미래로 성장하지 않고 악의 혼전만 거듭되는 것이다.

Macbeth는 Macduff가 England로 달아난 것을 안 후 "Time, thou anticipat'st my dread exploits" (IV. ii. 144)라며, 이제부터는 충동에 따라 행동하고 시간을 앞지룰 것이라고 결심한다. 시간 즉 자연의 법칙과 경주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은 결코 미래로 자라지 않는다. 몽유병에 시달리며 Lady Macbeth는 지절인다.

To bed, to bed : there's knocking at the gate.
Come, come, come, give me your hand.
What's done cannot be undone. To bed, to bed, to bed.

(V. I. 62-64)

이는 Ledy Macbeth의 의식속에서도 시간은 자라지 않고 그냥 Duncan王을 죽이던 그 밤으로 멈춰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Macbethheh도 "my way of/life is fall'n into the sere, the yellow leaf"; (V. iii. 22)라며 그의 시간이 자라지 않고 그대로 시들어 버렸음을 알게 된다. 그에게 있어서는 시간 그 자체가 시들어 썩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는 점점 쓸쓸해 지고 희망도 없어진다. 생의 지루한 혐오감과 끊이지 않는 두려움의 수렁에 허우적 대기만 한다. 무엇이든 인위적으로 해결하려는 Macbeth는 다음과 같이 시간의 정지상태에서 오는 절망감을 해결하려 진력한다.

Canst thou not minister to a mind diseas'd,
Pluck from the memory a rooted sorrow,
Raze out the written troubles of the brain,
And with some sweet oblivious antidote
Cleanse the stuff'd bosom of that perilous stuff
Which weighs upon the heart?

(V. iii. 40-45)

그러나 이 시간의 정지상태는 인위적으로 결코 치유되지 않는다. 그는 계속해서 소용없는 악의 도전으로 자신을 속이기만 할 뿐이다. 그 결과 Macbeth는 자기 영혼의 고갈 상태를 다음과 같이 고백한다.

I'gin to be aweary of the sun,
And wish th'estate o'th' world were now undone.—
Ring the alarm bell! —Blow, wind! Come, wrack
At least we'll die with harrness on our back.

(V. v. 49-52)

태양조차 보기 싫어진 그는 이제 스스로 파멸을 부른다. 이러한 Macbeth를 Knights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Macheth has betrayed himself to the equivocal and the illusory. So too time appears to him as meaningless repetition because he has turned his back on, has indeed attempted violence on, those values that alone give significance to duration, that in a certain sense make time, for "without the meaning there is no time"⁴¹⁾

그의 내면에 내재한 악의 지시대로 행한 Macbeth에게 시간은 無로 인도되는 악의 반복일 뿐이다. 이러한 시간의 정지상태에서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 無일 뿐이다. 아내의 죽음에 대한 소식마저도 그에게는 무의미하다. 그의 공허감은 그가 죽기전 그의 인생에 대한 비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

She should have died hereafter :
There would have been a time for such a word.—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
Creeps in this petty pace from day to day,
To the lart syllable of recorded time;
And all our yesterdays have lighted fools
The way to dusty death. Out, Out, brief candle!
Life's but a walking shadow: a poor player,
That struts and frets his hour upon the stage,
And then is heard no more : it is a tale
Told by an idiot, full of sound and fury,
Signifying nothing.

(V. v. 17-28)

41. L. C. Knights, 'Macbeth' in *Shakespeare, the Tragedy*, ed., Alfred Harbage (Englewood Cliffs: Prentice-Hall Inc. 1964), p.103.

영이 고갈되고 육체뿐인 Macbeth에게는 인생이란 천치들에 의해 떠드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그가 내세를 무시하고 중시했던 시간의 이쪽 쪽과 砂洲인 현세(I. vii. 6)와 또 어떻게 해서든지 성취했던 야망조차도 그에게는 영원의 바다에 의해 곧 덮여질 모래 사장일 뿐이다. Macbeth의 지금의 감정의 혼란은 너무도 고통스럽다. 시간의 정지상태에 있는 그에게 있어서 현세는 결코 내세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의 깊은 공허감은 'to-morrow, and, to-morrow, and to-morrow'에 잘 나타나 있다. 이 구절은 단조함과 천천히 가슴을 치는 무의미한 미래가 없는 미래로 향하고 있는 Macbeth의 슬픔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Macbeth만이 아니라 전 Scotland가 시간의 정지상태에서 끓고 썩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정지상태의 암담을 인간인 어느 누구도 치유하지 못한다. 몽유병의 Lady Macbeth를 치유하려 Doctor가 "More needs she the divine than the physician"(V. i. 71)이라고 판단하고 있듯 Macbeth의 악으로 시작된 이 절망의 세계의 치유는 오로지 신의 은총에 달려있다. 요컨대 Lady Macbeth의 "to beguile the time"(I. v. 63)도 Macduff의 "the time you may so hoodwink"(V. iii. 72)도 'grace of Grace'의 표상인 Malcolm의 출현에 의해서만 'Time is free'(V. ix. 21)로 승화될 수 있었다.

VII.

우리는 지금까지 작품 *Macbeth*에서 Biblical Echoes를 찾아 보았다. 창세기에에서 요한 계시록까지가 작품 전체에 깔려 있는 성경적 분위기를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 *Macbeth*이다. 이점에 대해서 Coursen도 "The fall of Macbeth draws for its precedent on both Genesis and Revelation, the first and the last books of Bible, a fact which suggest the fundamental implication of his crime"⁴²⁾ 이라고 밝히고 있다. 비평가들에 의해 대체로 다 지적된 바이지만 Duncan과 Malcolm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었고, *Macbeth*에서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타락하게 되는 Adam과 가룟 유다의 그것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plot의 전개에서 Macbeth를 중심으로한 '악'의 측면이 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grace'의 측면인 Duncan과 Malcolm의 비중도 작품 이해에 중요함은 틀림 없다. 4대 비극이 전부 질서 회복이라는 대명제에 부응하고 있지만 *Macbeth*에서 Malcolm만큼 성경적 뒷받침을 받고 있는 인물은 없다. 특히 Malcolm에게서 'second coming'할 그리스도의 역할을 분명히 밝힐 수 있었던 점은 다른 비평가의 글에서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42. Coursen, JR., *op. cit.*, p. 376.

여하튼 Macbeth는 'Christian Play'이다.⁴³⁾ 그것도 단순한 Christian play가 아니라 Bible에서 밝히고 있는 인류 역사를 압축해 놓은 작품이다. 요컨대 하나님과 Satan의 대결이 그 중심으로 되어 있는 Bible과, 'Heaven'편인 Duncan, Malcolm과 'Hell'편인 Macbeth의 대결로 구성되어 있는 *Macbeth*를 연구 비교해 보면 작품 *Macbeth*의 진가를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Shakespeare의 천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43. Battenhouse, *op. cit.*, p. 72.

Summary

Biblical Echoes in *Macbeth*

Kwon Young-keun

Macbeth is the world's most famous dramatic tale of crime and punishment. It, at the first glance, is full of evil and is about damnation. Macbeth sells his soul to the Devil as surely as did Faust. He is tempted not by the Prince of Darkness himself but by his emissaries, the witches. They are more than his secret agents. They are Satanic incarnation, however partial, of his compulsion to evil. Inevitably, they set about capturing another soul for their lord and master, Satan.

In order to present a convincing image of damnation, however, Shakespeare had to describe and create the good which Macbeth had sacrificed. Reading the play in detail, therefore, we can appreciate that there are also grace, life and brightness which are contrasted with evil and darkness. The play still contains many antitheses which are not to be found under such headings as life and death, day and night, grace and evil, Angel and Devil. It may even be suggested that the archetypal antitheses which means the contrast of God and Satan in the Bible is hidden in *Macbeth*.

Considering carefully the circumstances of Duncan's Death, we can find the figure of Christ in Duncan. And in the phase of Malcolm's attack on Dunsinane with the power above, we also find the figure of second coming Christ in Malcolm, and in many parts of Macbeth's speech and action, the figure of Adam or Judas Iscariot instigated by Satan who manipulate the Witches and Apparitions in the play. Malcolm and his allies are namely the instrument of powers above, and are God's soldiers. They are the enemies of Macbeth to which he is a butcher, a tyrant, a hell-kite, a hellhound.

In conclusion, *Macbeth* is the most Christian of Shakespeare's works because of its archetypal fitting to the Bible. Just as this world, endowed to Satan by the fall of

Adam, will be restored by the second coming Christ, so Scotland, devastated by the fall of Macbeth, which draws for its precedent on both Genesis and Revelation, is restored by Malcolm and his allies.